

한형조 무문관 발행

74

오조 '너는 누구냐'

* 동산(東山)의 오조법연(五祖法演)이 물었다. "석가와 미륵이 모두 그의 노복이다. 어디, 말해보라. 그는 대체 누구냐."

* 나 해개가 말한다. "만일 그를 분명히 알아본다면, 가령 네거리에서 아버지와 맞닥뜨린 것같이, 다른 사람에게 긴지 아닌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 송하여 가르쳐. "남의 활은 당기지 말고, 남의 말은 타지 말며, 남의 원은 들추지 말고, 남의 일은 간섭하지 말라."

東山演師曰。釋迦彌勒。猶是他奴。且道。他是阿誰。無門曰。若也見得他分曉。譬如十字街頭撞見親爺。更不須問別人。道是與不是。頌曰。他弓莫挽。他馬莫騎。他非莫辯。他事莫知。

당일 이후 선의 종풍은 언제 연원을 둔 양기와 혼동이 이어가게 된다. 오조법연은 양기파의 걸출이다. 그의 제자로 선의 화두를 집약한 '벽암록'의 저자 원오곡근이 있다. 두문관의 저자 해개 또한 이 인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61강 천녀유혼과, 62강 외나무다리, 그리고 65강 쇠교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였다. 이번까지 별 * 네번재인 것을 보면, 후기 선에서 그가 접하는 위치와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물음은 간단하다. 여기



그림 · 문병성

한 둥근 원. 석가도 만나지 못했거나, 가법이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는가(古佛未生前。凝然一圓相。釋迦猶未會。迦葉豈能傳).

그리고 보니 서산대사의 '禪家龜鑑'이 생각났다. 대학시절 법정 스님의 정확한 번역과 자상한 주해로 한 시절 꼭 찾았던 그 책. 선의 이념과 방법, 그리고 유의점을 골자만 적은 가위 선의 매뉴얼. 구상은 연역적이다. 구원의 공극인 그 절대의 모습을 서두의 표제로 삼았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 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이름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有一物於此。從本以來。昭昭靈靈。不曾生不曾滅。名不得。相不得)."

사람의 곳곳에서, 혹은 편지나 문집에서 종종 동그런 빈 원이 하나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본다. 스님들이 그리려는 서화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혹은 낙관으로 새겨지고 혹은 아예 법령으로 쓰인다. 원불교는 이 빈 원을 절대 상징으로 삼고 새로운 불교를 열었다.

대체 이 동그라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육조 해개가 물었다. "내에게 한 물건이 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너희들은 이게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 물음에 문자속깊은 하택(荷澤)의

일상의 경험서 法을 보라

책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4

수행의 장애 ⑤

제1장 : 나는 거리를 걸어갔다. 깊은 구멍이 있는 길이었다. 나는 그곳에 빠졌다. 나는 허우적거리기 시작했고 도움이 필요했다. 그것은 명백히 내 실수였다.

제2장 : 나는 같은 길을 걸었다. 깊은 구멍이 여전히 있었다. 나는 그 구멍을 보지 못한 채 걸어갔다 또 빠졌다. 나는 같은 장소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제3장 : 나는 그 길을 걸었다. 길에서 깊은 구멍을 보았지만, 나는 그 속에 빠졌다. 습관이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내 실수를 보았다.

제4장 : 나는 길을 걸었다. 길에는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나는 구멍을 피

해 돌아서 걸어갔다. 제5장 : 나는 다른 길로 가려고 노력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지만, 과정에

수행과정에서 겪는 탐욕·불신 등 장애물 깨달음의 밑거름 삼자

서 범하는 실수는 피할 수 없다. 인생이 그렇고 수행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무쌍한 경계들이 모두 다 같은 것임을 알게 될 때, 오직 법(法)만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일단 이 흐름에 발을 들여놓아 해탈의 맛을 보게 되면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악행을 짓고 싶진 않음을 내는 경지를

넘어서게 된다. 마음은 길을 바꾸어 성자의 길로 가는 흐름에 들어갔으므로 다시는 고훘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떨어질 수 있었는가? 마음은 이미 악업을 끊어버린 것을.

2세기 무렵 알렉산드리아에는 예바그리우스와 그를 따르는 수행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특별한 명상수행을 위해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으로 떠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낸 안락한 시간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수행자들의 좌절은 더욱 깊어졌다. 예바그리우스는 이것은 '마음의 악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일동안 고민한 후 "나는 욕망, 좌절, 분노를 극복하였는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훌륭한 명상가인가?" 등을 항상 질문하도록 추종자들에게 가르쳤다. 물론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명'

상'이란 것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수행의 장애물 욕망, 분노, 불안, 잠, 게으름, 불신 등이 있다. 예바그리우스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람을 관찰하면 모두가 무상하고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되고 약간의 지혜가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에 대한 의심과 권태로움이 다시 찾아오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실재를 모르고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징후가 아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의 가슴이고 마음인 것이다.

불교의 전통에는 수행의 장애물을 다스리기 위한 수많은 종류의 전략이 있다. 이중에서 '독이 있는 나무'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 수행자는 '나무를 잘라 서 죽이거나 '나무 근처에 앉아 일과 열매를 먹지 마시오'라고 경고한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독이 있는 나무야. 일찍이 본 적이 있지. 이 나무의 열매는 탐욕, 욕망, 두려움, 분노, 불신 등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명약이지." 과연 무엇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는가.

"마음의 장애물들은 온전한 깨달음과 보살의 비로"라고 말했던 티베트의 고승 조암 트림과 린포체의 가르침이 소중해지는 순간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밝고 신령스러워 나지도 죽지도 않고 이름·모양 지을 수 없는 '한물건'

누군가가 있다. 그런데 그는 석가와 미륵을 아랫것으로 부리고 있다. 대체 그는 누구인가.

'불교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를 만나러 가는 도정이고 방편이다. 그의 이름은 여러이다. '부처(佛)'라기도 하고, '여래(如來)'라기도 하며, '불성(佛性)'이라기도 하고, '법신(法身)'이라고도 한다. 그뿐인가. '대승(大乘)'이라고도 하고, '일심(一心)'이라기도 하고, 또한 '공(空)'이라고도 한다. 선은 여기에 수많은 리스트를 더했다. 육조의 '본래면목(本來面目)'과 남전의 '평상심(平常心)', 조주의 '무(無)'와 '개', '자나무' 그리고 '차 한잔', 구자의 '손가락'에 청세의 '술', 서암의 '주인공'과 남전의 '고양이', 운문의 '동막대기'와 동산의 '삼베 세 근', 덕산의 '물동이'와 수산의 '죽비'와 파초의 '지팡이'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체(體)는 하나이지만 상(相)은 여럿인 까닭이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지럽거나 번다하지 않다. 원효도 그리 말했다. "무한정 필친다고 근본을 다치는 것은 아니다(妄要)."

그런데 누구도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 탈켜지지,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라고 읊은 사람이, 공주의 마곡사에서 이런 주련을 보았다. "옛 부처가 태어나기 전에, 등두했던

신회(神會)가 나왔다. "여러 부처님들의 본원(本源)이자, 신회의 불성(佛性)입니다." 해능선의 정통성을 지키자고 북종선과 대치하느라 정작 본래의 공부에는 소홀했다 보다. 해능은 입맛을 다시며 그를 서자(弟子)의 자리에 앉혔다. 나중에 남악(南嶽)의 회양(懷讓)이 찾아가자 육조는 이렇게 물었다. "대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고(什摩物伊來)." 회양은 어쩔 줄 모르고 진땀을 흘리다가 육조 앞을 물러났다. 8년 후에 돌아온 그는 당당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물건' 운운 하시면 그거 움직 않습니다(說以一物則不中)." 육조는 그를 적자(嫡子)로 인정했다. 그 아래에서 친하를 달리는 천리마 마조(馬祖)가 나온 것은 앞의 장외에서 짙은 대로의이다. 나는 늘 '이 물건'이 궁금했다. 그래서 어느날 백주대에서 앞서 가는 여객들의 뒤를 추를 두들겨 보기도 했다. 지금도 그게 궁금하기 짝이 없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이제까지 아까운 지면을 갈으며 황실수술한 것도 그 양종모색의 여정(餘情)이라면 헛바탕을 남겨 주실지. 대체 그는 누구인가. 남의 활은 그만두고 내 활을 잡아 보자. 대체 나는 누구냐. 세익스피어를 빌리자면, "내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대오와 대발견

김용운

남만 남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남이다. 중생이 석가의 남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남이다. 장미의 남이 불이라면 맞치니의 남은 이탈리아다.

- 한용운 시 '군말' 중에서 -

같은 다르더라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대상은 모두 남이 될 수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수학자의 남은 수학이 될 것이고 불자의 큰 깨우침은 수학자에게 있어서는 대발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큰 깨우침, 큰 발견의 대상은 내적, 외적이라는 차이는 있을망정 한결같이 자신의 세계를 새로이 열어가는 창조적 작업이며, 한용운 스님의 어법을 빌어 말한다면 '남'을 찾는 일이라는 점에서 공통이다. 따라서 수학자(넓은 뜻에서의 과학자)의 대발견의 길은 마치 불자의 있어서의 대오의 길과도 같을 것이다. 옛부터 과학자들 사이에는 큰 발견의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것이 직관 또는 치밀한 합리적 사고 중 어느 쪽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중점을 두는지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엇갈리는 논의들은 불교계의 둔점(頓漸) 논쟁에서도 볼 수 있다. 불교에 있어서의 둔오(頓悟)는 수행의 단계를 밟지 않고 직관적으로 깨우침을 얻는 것을 말하고 한편 점오(漸悟)는 순서를 밟아 점진적으로 오랜 수행을 겪은 후에 깨우침을 얻는 것을 말한다.

과학상의 대발명이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므로써 얻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면밀한 논리추구의

시 그것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급속 활자의 발명은 과학사적 대량인쇄를 가능케 했으며, 그것이 과학혁명, 기술혁명에 이어지면서 산업혁명이 가능했고, 그 연장선상에 전자통신, 정보화 문명이 개화되었다는 것이다. 구텐베르크의 시대에도 이미 누구나 글을 새긴 나무토막에 잉크를 바르고 종이에 누르면 그 글씨가 종이에 그대로 찍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으로 수백 페이지나 되는 성서를 인쇄하

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에서 그는 현상에 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지면서 새삼 압축기의 엄청난 힘을 알아차리고 그 압력을 이용해서 등전 또는 도장을 만들기 쉬운 소재가 남아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활자를 생각해 낸 것이다. 일단 활자만 만들어 내면 간단히 그것들을 배열시켜 종이에 대고 누르면 인쇄가 되는 것이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 널려 흐르는 물에서, 구텐베르크는 포도주에서 흘러 나오는 포도주에서 대발견의 계기를 얻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액체의 흐름이다. 역동적인 액체의 흐름이 무의식의 흐름에 자극을 준 것일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움직이는 대상이 정지상태에 있는 것보다 자극적인 것만은 틀림 없을 것이다. 요컨대 과학자의 대발견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대상들이 자신의 무의식에 작용하여 연관성을 갖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선의 화두는 이를테면 '물 속에 나르는 새를 잡아라'와 같이 비현실적이며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화두와 씨름하는 일, 또는 참선에 몰두하는 등 길은 많다. 이들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남과 연관의 고리를 찾는다. 돈, 점, 어느 길을 걸어도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이 한줄기 빛이 창조적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만들듯 수행자도 과학자도 전심전력하면 창조의 문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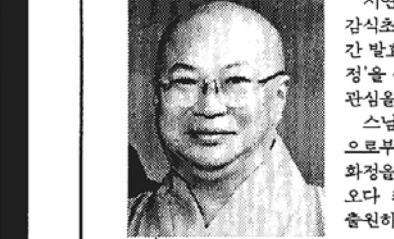
결과로써 얻어지는 것일까. 왕의 명령으로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아르키메데스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이때 탕 밖으로 넘쳐 흐르는 물을 보고 아르키메데스는 '물체를 물에 넣으면 그 물체와 같은 부피의 물의 양만큼 가버린다는 유명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다.

인류문명사상 최대의 발명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로 기록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정보화혁명

은 일은 현실성이 없었다. 또한 동전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글씨가 새겨진 금속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무토막을 새기는 일과 동전을 만드는 일, 이 두 가지의 지식만으로 금속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가 부족하다. 구텐베르크는 이 답을 엉뚱한 곳에서 얻었다.

어느날 포도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던 구텐베르크는 붉은 포도주가 통에서 팔팔팔 흘러 나오는 것을 보고 '포도주가 나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이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을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부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희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혜영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승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표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시미놀」 성분을 대량추출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체의 각종 세포를 보호하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목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서 주지로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정숙고(정숙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서(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선식(松仙食)」, 「술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형정심 울림